

가정폭력 피해자의 하나님 이미지 형성요인과 신학적 대안 연구

김성환*

국문초록

본 연구의 중심 목적은 한국 교회의 가정폭력 피해성도의 하나님 이미지의 형성 요인을 탐색하고 그들의 왜곡된 하나님 이미지를 성경적으로 회복 할 상담신학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가정폭력 피해성도의 하나님 이미지는 그들의 끔직한 폭력경험과 몇 가지 다른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쉽게 왜곡될 수 있고 그것이 온전한 치유와 믿음의 성장의 방해요소로 작용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폭력경험과 상호작용하여 폭력피해자의 왜곡된 하나님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심리학적, 전통종교문화적, 사회변동적, 신경생리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폭력경험과 연관된 다양한 세부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폭력피해성도의 하나님 이미지 형성과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왜곡된 하나님 이미지의 성경적 회복에 도움을 주는 적절한 목회상담 신학적 방향의 제시를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빛 아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위로와 소망에 근거한 긍휼의 신학과 신정론적 신학의 확립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중심단어 : 하나님이미지, 가정폭력, 대상관계이론, 전통종교, 긍휼의 신학

• 논문 투고일: 2011년 4월 14일

• 게재 확정일: 2011년 5월 12일

*광신대학교

• 논문 수정일: 2011년 5월 3일

I. 여는 글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가정 폭력에 오랫동안 노출된 성도들 중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믿음의 발전과 성숙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그 이유를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인 중의 하나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가해자와의 관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목회상담에 있어 피상담자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지닌 하나님의 이미지 진단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존적이고 해석학적인 차원에서 보다 깊이 있게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는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 느끼고 관계 맺는 양상을 알려주는 요소로써 기독교들에게는 영적성숙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¹⁾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한 성도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 폭력 경험을 통해 어떻게 비성경적으로 왜곡되고 편향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부분이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복되도록 돕는 일은 피해성도의 근원적 치유와 회복 그리고 믿음의 성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²⁾ 그 동안 수 많은

1) M. S. Saur & W. G. Saur, "Image of God: A Study of Psychoanalyzed Adults," in *Object Relation Theory and Religion: Clinical Applications*, eds. M. Finn & J. Gartner (Westport, CN.: Praeger, 1992), 130; Daniel J. Louw, *A Pastoral Hermeneutics of Care and Encounter: A Theological Design for Basic Theory, Anthropology, Method and Therapy* (Cape Town: Lux Verbi, 1999), 82-86; T. W. Hall & B. F. Brokaw, "The Relationship of Spiritual Maturity to the Level of Object Relations Development and God Image," *Pastoral Psychology* 43, no.6 (1995): 373. 김성환, "전통종교의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상담학적 고찰", 한국성경적상담학회, 「성경과 상담」 제10권 (2010): 105.

2)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성도의 하나님 이미지를 다루는데 있어 하나님의 실재와 하나님 이미지를 구별해야하며 하나님과 하나님 이미지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성도들은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에 대한 각자의 이미지를 형성해나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환경이나 체험 그리고 심리적 상호작용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원래의 하나님의 참 모습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실체이

하나님 이미지와 한국기독교인 가정폭력 관련 연구들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별개의 연구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전요셉은 부성부재와 연관된 청소년의 하나님 이미지를, 김사훈은 대상 관계적 관점에서 하나님 이미지 문제를 황혜리, 김경탁은 기독교 대학생의 하나님 이미지와 자존감의 관계를 다루었다. 김선희는 여성 성폭력 피해자 문제를 다루었으나 하나님 이미지와의 연관성은 없었다. 김영희는 가정폭력은 아니지만 학교폭력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왕따 학생들의 하나님 이미지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루었다.³⁾ 이와같이 하나님의 이미지 혹은 가정폭력 주제와 연관된 매우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한국교회 가정폭력 피해성도들의 하나님 이미지 형성 요인에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없었다 할 수 있다. 본 논고에서는 한국교회의 가정폭력 피해성도의 하나님 이미지의 연관성을 대상관계심리적 관점, 전통종교문화적 관점, 사회적패러다임 변화의 관점, 신경생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해보고 그에 대한 신학적 대응방향을 간략히 모색하는데 그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정폭력 피해성도들의 하나님 이미지의 왜곡 정황과 실태를 드러내는 작업과 그 상담신학적 대응방향의 구체적 적용 모델을 제시에 미흡함이 있음을 아쉬운 마음으로 밝히면서 이를 추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신 하나님의 계시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반신환, “신 형상에 대한 Rizzuto의 대상관계론적 이해와 그 비판”, 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 제3호(1997): 213-219; R. Viladesau, *Theological Aesthetics: God in Imagination, Beauty and Ar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361.

- 3) 전요셉, “청소년이 인식한 부성부재와 성역할 정체성 및 하나님이미지의 구조적 관계: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중심으로”,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제11권 3호(2010): 1237-1253; 김사훈, “초기대상관계를 통해 본 하나님 이미지”, 기독교상담연구소, 「복음과 상담」 제29호(2003): 9-46; 황혜리·김경탁, “기독교 대학생의 하나님 이미지와 자존감의 관계: H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제6권 1호(2005): 275-286; 김선희, “여성성폭력피해자를 위한 기독교상담: 폴링의 이론을 중심으로”, 기독교상담연구소, 「복음과 상담」 제44호(2009): 22-76. Young-hee Kim, Shim, “The Influence of Wangtta on God-Images of Korean Children: A Pastoral Assessment” (Th. D. diss., University of Stellenbosch, 2005).

II. 펴는 글

1. 한국사회 가정폭력이해

1) 가정폭력 개념 및 실태

가정폭력은 신체적 물리적 손상을 유발하는 구타뿐 아니라 정신적 폭력, 성폭력, 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의 가해행위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가족구성원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는데 우리나라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족 구성원 간의 폭력의 유형은 배우자폭력, 자녀폭력, 노인폭력, 존속폭력 등이 있는데 이들 용어는 아내학대, 아내폭행, 부부폭력 등의 용어와 혼용되기도 한다.⁴⁾ 가정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커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은 줄지 않고 있다. 감추어진 가정폭력은 더 많이 있겠지만 통계상으로 드러난 우리나라 가정폭력 발생률의 추이를 살펴보자.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신체적 폭력률이 2004년 15.7%, 2007년 11.6%, 2010년 16.7%로 높아져 왔는데 이는 201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65세 이상 부부 여섯 쌍 중 한 쌍이 한 번 이상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하거나 행하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2010년 조사결과 지난 1년간 65세 미만 기혼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비율이 15.3%로 영국(3.0%, 2007년), 일본(3.0, 2001년)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⁵⁾ 가정폭력 피해여성 실태와 특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70%는 결혼 1년 이내에 처음으로 폭력을 경험하였고 72.5%가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고 40%는 골절 등의 심한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이들은 가정폭력의 후유증인 낮은 자존감과 심각한 우울증상과 높은

4) 변상해, “한국가족폭력피해자 교정상담프로그램만족도와 내용분석에 관한 연구”(박사 학위논문, 백석대학교, 2007), 9-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1항.

5) <http://peakhill.blog.me/140120584285>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으며 자녀들에 대한 폭력 행사경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⁶⁾

2) 가정폭력 요인 및 영향

변상해는 한국인의 가정폭력의 요인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첫째는 정신병리학과 알코올중독을 포함하는 정신의학적 요인이며, 둘째는 학습 및 모방과 폭력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포함하는 사회심리적 요인이다. 셋째는 사회적 스트레스와 계층요인을 포함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들고 넷째는 가부장적 요인이다.⁷⁾ 그 중 한국인에게 있어 가정폭력의 비율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먼저 가부장적 사회경향성을 들 수 있다. 최근 한국사회도 시간이 갈수록 남녀평등이나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고 남편의 매 맞는 비율도 소폭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가정폭력의 희생자들의 대부분은 아내와 자녀들로 폭력이 남성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가부장적 체계의 그늘 속에서 남편의 폭력 행위는 치명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도덕적, 심리적 차원의 문제로 희석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가정폭력에 있어 학습과 모방의 요인은 폭력가정에서 부모의 폭력을 경험한 아동들이 그것을 학습하고 모방하여 그 폭력이 대물림 된다는 관점들을 포함한다. 가정폭력과 연관된 또 다른 요인으로 실직, 경제난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가족갈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가져 올수 있는 것으로 경제적 침체, 실업, 편부모, 빈곤, 사회적지지 부족을 들기도 한다. 한국 여성부의 자료에 의하면 남편이 실업상태에서 아내만 취업한 경우 남편 폭력 발생률이 45.2%로 가장 높았다고 한다. 또한 가해자의 음주벽이 가정폭력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되는데 알코올은 한국사회의 암묵적으로 공인된 악성스트레스 완화제로서 소위 '주사' 라는 가해자의 잘못

6) 강은희,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교정집단이 가정폭력해위자의 폭력행동,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2008), 1-4.

7) 변상해, "한국가족폭력피해자 교정상담프로그램만족도와 내용분석에 관한 연구", 14-22.

된 슬버릇으로 인한 가정폭력 발생이 매우 높은 수준에 와있다.⁸⁾

가정폭력이 피해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각한데 낮은 자존감, 공포나 분노감을 부인하면서 죄의식으로 고통 받는 것,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 상실, 불안, 우울, 가해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죽고 싶다는 생각과 같은 정신적 심리적 증상은 물론 수면장애, 섭식장애, 만성피로, 두통, 위장문제, 고혈압, 심장문제, 알레르기 등의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도 심각한데 대체로 발달상의 문제 혹은 정서, 인지 행동상의 문제가 장 단기적으로 나타나며 슬픔, 외로움, 공포, 분노 등의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분노가 쉽게 표출되고 자해, 동물학대, 반항적이고 적대적인 성격 성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폭력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강도는 각종 전쟁 및 내전 중의 아동이 받는 스트레스 정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전쟁이나 내전 중의 아동이라 하더라도 외부의 상황은 긴박한 긴장상황이지만 가정 내의 가족이 정서적 울타리나 완충역할을 해주지만 폭력가정의 아동의 경우 그 울타리 자체가 연속된 스트레스와 긴장의 제공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⁹⁾

아버지로부터 구타당하는 어머니를 보고 자라거나 어머니와 함께 직접학대를 받고 자란 아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성격과 정신건강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아버지에게 의해 자신과 어머니에 대해 학대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아동은 아버지에게 대한 공포와 분노 두려운 정서를 경험하고 그 상황에 대한 아무런 통제력을 가지지 못한 스스로에 대한 무능력감과 자괴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자신의 잘못에 의해 혹은 자신이 지켜주지 못해 어머니가 학대당한다는 죄책감에 휩싸이기도 하고 부모의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 버림받을

8) 강은희,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교정집단 상담이 가정폭력행위자의 폭력행동,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24-25.

9) M. O'Keefe, “Adjustment of Children from Maritally Violent Home,” *Family in Society* 75 (1994): 403-405; H. M. Hughes, “Psychology and Behavior Correlates of Family Violence in Child Witness and Victi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8 (1988): 77-90. 변상해, “한국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와 내용 분석에 관한 연구”, 32-35에서 재인용.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의 가정 내에서 은밀히 일어나는 폭력이 바깥으로 알려 질까 봐 두려워하고 그 사실에 대해 수치심을 느낀다. 그리고 성장 해가면서 낮은 자존감으로 괴로워하고 공격적이고 반항적이며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내기도 한다.¹⁰⁾

2. 가정폭력과 피해성도의 하나님 이미지 연관성

한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로 인해 비난, 무시, 공격적 부모 이미지를 형성한 자녀들은 하나님을 부정적이고 어두운 이미지로 지각하는데 특히 아버지의 지속적인 폭력, 욕설, 무시 등에 노출된 자녀는 부정적인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이와 같이 가정폭력은 어떤 형태로든 피해자의 하나님이미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본 장에서는 가정폭력이 피해성도의 하나님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대상심리적 관점, 전통종교문화적 관점, 사회적패러다임 변화의 관점, 신경생리적 관점에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대상관계심리적 관점

대상관계이론은 과거의 관계경험들에 의해 형성된 성격 특징들이 현재의 관계에 주는 영향에 관심을 가지며 부모와의 초기 관계에서의 경험이 개인의 종교경험 및 하나님과의 관계에 극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주장한다. 따라서 대상관계 심리학적 관점은 폭력으로 인해 형성된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피해 성도의 하나님 이미지 형성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이해의 틀을 제공한다. Ana Maria Rizzuto는 한 개인의 하나님

10) Kay-Laurel Fisher & Michael F. McGrane, *Journey Beyond Abuse* (Saint Paul, MN.: Amherst H Wider Foundation, 1977), 43-76. 변상해, “한국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와 내용 분석에 관한 연구”, 36 에서 재인용.

11) 김사훈, “내면화과정과 하나님 이미지 형성간의 관계연구”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5), 113-116.

이미지는 인생의 의미를 제공해줄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 위안을 주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겨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강압적이고 차가운 부정적 하나님 이미지는 그 반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녀는 사람마다 경험하는 신의 존재적 의미와 형태, 현상을 그대로 인정하며 프로이트를 넘어서 종교를 통해 가지게 되는 심리적인 경험을 대상 관계적 입장에서 설명한다. Rizzuto는 각 개인이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신표상(The God Representation) 혹은 “하나님이미지”를 형성한다고 본다.¹²⁾

인간은 모태에서 나오면서부터 자신이 아닌 외부의 대상(object)과의 관계가 시작된다. 대표적 대상관계심리학자의 한 사람인 Donald W. Winnicott은 출생이후 영아는 자기 자신과 구별되는 ‘나 아닌’(not-me) 다른 존재의 타자성을 발견해 가면서 불안 가운데 자기(self)를 형성해 간다고 보았다. Winnicott은 영아에게 외적인 실재와 내적인 실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모태에 있을 때 자기와 대상은 하나였지만 출생 이후 신생아는 자기의 일부로 알았던 엄마가 ‘나 아닌’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가게 되면서 존재의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때 자신의 근원적 불안을 달래줄 그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데 그 것을 ‘중간대상’이라고 부르며 그 대표적인 예로 손가락이나 곰 인형을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중간대상이 형성되는 심리적 영역을 ‘중간영역’이라 부르는데 그 이유는 외적인 실재와 내적인 실재를 연결하고 주관적이고 내면적인(inner) 경험과 객관적이고 외부적인(outer) 경험을 아우르는 중간적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Rizzuto도 이러한 중간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미지가 형성되면 여기에 개인의 심리적 잠재력이 집중되고 삶과 자기정체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하나님 표상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위니컷의 이론에 기초하여 유아들이 자신을 돌보는 최초의 주요양육자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내적 경험이 하나님 표상 혹은 하나님 이미지와 연관이 있다고 믿는다. 이와 같이 유아가 가지

12) Ana Maria Rizzuto, *The Birth of Living God: A Psychoanalytic Stud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15-25; 반신환, “신 형상에 대한 Rizzuto의 대상 관계론적 이해와 그 비판”, 213-219.

는 최초의 '나 아닌' 다른 존재로부터 비롯된 중간대상에 대한 경험이 최초의 하나님 이미지와 연관되며 '곰인형-신' 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중간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자기감(sense of self) 형성과 이 후의 삶의 무의식적 추동의 중요한 기초로 작용한다는 것이다.¹³⁾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영유아기 초기 돌봄의 중요한 제공자였지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공포의 폭군 아버지' 라는 대상과의 부정적 경험은 성장한 이후 대상이 남편 혹은 하나님으로 바뀌어도 그 고착된 대상관계가 지속된다고 본 것이다.¹⁴⁾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마음속에 깊이 묻혀있던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꺼내어 이를 성경에 나타난 참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그 이미지를 성경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대상과의 부정적 고착관계 패턴을 청산하고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여 근원적인 치유와 회복 그리고 믿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¹⁵⁾

2) 전통종교문화적 관점

전통종교의 학자들 간에 한국인들에게 '인격적인 신'의 이미지의 존재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독교가 한국에 전래되기 이전에 이미 한국인들의 심성 깊이 수 천 년 전통종교의 영향으로 형성된 일

13) Rizzuto, *The Birth of Living God*, 15-25, 177-179; Donald W. Winnicott, *Playing and Reality* (New York: Routledge, 1997), 12-18; John McDargh, *Psychoanalytic Object Relations Theory and the Study of Religion: On Faith and the Imaging of God*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3), 10-21.

14) 이 경우 '고백적 신학' 즉 의식적으로는 은혜의 하나님을 고백 하지만 삶에 작용하는 소위 '작용적 신학'으로는 공포의 아버지를 통해 경험한 무자비하고 폭군적 하나님의 이미지가 영향을 미쳐 하나님이 계시해주시는 참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방해 받게 된다. 권수영, 『기독교상담, 어떻게 다른가요?』 (서울: 학지사, 2007), 38-42.

15) 실제의 상담 장면에서 어린 시절 부터 아버지의 극도의 폭력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성장한 성도 중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거부감을 가지고 주님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는 경우를 만날 수 있는데 이 경우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게 연관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때 미분화된 두 개의 이미지를 분리시키고 공감적 이해와 치유의 과정을 거치면서 궁극적으로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성경적으로 회복시켜 줄 필요가 있다.

신론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미지의 강한 흐름이 이미 존재했다. 이 흐름은 어떤 형태로든 한국교회 성도들의 하나님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었고 가정폭력 피해성도들의 하나님이미지 형성에도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샤머니즘, 불교, 도교, 유교 등 한국 전통 종교들은 수 천년에 걸쳐 한국인들의 심층 깊숙이 신에 대한 관념 혹은 신적 존재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그 신이미지 속에는 일신론(monotheism), 다신론(polytheism), 다귀론(polydemonism), 범신론(pantheism), 범재신론(panentheism), 무신론(atheism)등의 요소가 다양하게 내재해있었다. 그 중 기독교나 이슬람교처럼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수 천 년 동안 한국인의 심성 깊이 일신론적(monotheistic) 신의 이미지가 매우 강하게 주류를 형성하며 흘러왔다고 할 수 있다. 그 일신론적 존재는 천, 하늘, 상제, 옥황상제, 하늘, 하느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졌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 주관하고 우주를 통치하며 인간의 그 어떤 소원도 들어 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고 잘못하면 가차 없이 천벌을 내리는 무엇인가 무섭고 거리감이 있는 하나님이다.¹⁶⁾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예를 들어 샤머니즘의 신관 속의¹⁷⁾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예측 할 수 없는 무서운 존재로 비춰진다. 샤머니즘의 대표적인 제의

16) 김성환, "전통종교의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상담학적 고찰", 119-120

17) 한국 샤머니즘에 총 이백 칠십 삼 종류의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지만 이들 신들이 네 개의 층으로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주장한다. 그는 샤머니즘의 다신론적 계층구조의 여러 신들 위에 가장 높이 군림하는 '천신(the heavenly god)'이 존재하는데 이를 일컫는 자생적이고 토속적 이름이 '하느님'이다. 이 하느님이 한국인의 심성에 주류를 이루며 일신론적 인격신의 이미지를 형성해왔다 할 수 있다. Tae-Kon Kim, *Korean Shamanism-Muism*, trans. & ed. Soo-Kyoung Chang, *Korean Studies and Series* 9 (Seoul: Jimoondang, 1998), 94-95; Sung-Hae Kim, "Religious Reality and Coexistence in the Present-day Korea," *Korea Journal* 28, no. 3 (1998): 4-23; Yong-Bok Rha, "An Analysis of the Terms Used for God in Korea in the Context of Indigenization" (Th. D. diss., Free University, 1977), 141-151; 김성혜, "한국인의 하나님 개념", 서강대종교신학연구소, 『종교신학연구』 제8호 (1995): 107-127; 김성혜, "한국인의 하나님 개념과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사상 관념", 한국카톨릭문화연구소 15회 심포지움, 1993년: 4-60.

의식의 하나인 ‘굿’은 그 자체가 신적 존재들의 심기를 달래어 복을 얻고자하는 동기로 진행되는데 ‘부정탄다’는 말은 제의의식이 신적 존재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무서운 벌을 내릴 수 있으므로 최대한 그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조심 할 것을 경고하는 용어이다. 전능하지만 무서운 신적 존재들의 노여움으로 인한 저주, 재앙을 피하기 위하고 그 전능한 힘을 빌어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받기위해 그 신적 존재에 정성을 다한 것이다. 유교나 도교에서는 신적존재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전능하면서도 인간의 행위에 따라 엄위한 심판을 내리는 ‘인격적 신’의 모습으로 혹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우주만물의 궁극적 실체로서 ‘비인격적 신’의 모습으로 비취졌다. 어찌되었던 전통종교의 영향으로 한국인의 심성 깊이 흐르는 일신론적 신 이미지는 “전능한 천상의 통치자요 무엇인가 거리감이 있고 두려운 도덕적 심판자”의 모습으로 요약 될 수 있다. 한국 민족은 오랜 역사를 통해 이 두렵지만 전능하신 신적존재에게 간절히 소원을 빌어 왔다. 얼핏 보면 그들이 자신의 문제 해결과 복된 삶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찾았던 그 신적존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전능하나 본질적으로 냉담하거나 무감정적인 하느님에 가까운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를 한국인이면 누구나 잘 아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속담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속담 속에서의 ‘천’으로 표현된 신적존재는 인간이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자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제서야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하느님이 되어 인간의 소원과 필요를 살피준다.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 놓고 혹은 아들을 얻기 위해, 자녀들의 입신양명과 출세를 위해, 건강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전통 신에게 기도하며 정성을 드린 것은 전능하지만 무감정하거나 냉담한 신의 마음을 녹여 내 문제와 아픔에 관심을 가진 따뜻한 마음을 지닌 신으로 변화시키는 일종의 예열과정이었음의 의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격적 교제와 만남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전능하지만 무엇인가 냉담하고 무감정한 도구적 필요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전통신의 이미지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가정폭력의 피해성도들이 고통과 상처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요소로 작용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방해하는 전통종교의 보다 큰 이미지 요인은 바로 ‘천벌을 내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목회상담에 있어 근본적 치유와 변화의 열쇠는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에 있다. 그런데 자신이 받는 모든 고난이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리는 천벌이라고 여기는 성도가 있다면 고난 중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그렇게 여의치 않을 것이다. 성장기간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던 성도는 물론 결혼 이후에도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된 성도는 전통종교의 영향의 상호작용으로 ‘천벌을 내리시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이미지’가 강화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정서적, 영적 거리감과 간격이 넓어지고 그 분과의 인격적 만남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¹⁸⁾

3)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의 관점

한국사회는 서구사회가 200년 혹은 300년간에 걸쳐 경험한 농경사회로부터 포스트모던 사회로의 변화를 불과 지난 50년 혹은 60년 만에 극적으로 경험하였다. 그 결과 매우 짧은 기간 동안 한국사회는 매우 엄격하고 보수적인 사회로부터 개인주의적이고 발전된 성취 지상적인 포스트모던 사회로 변화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지만 한국사회는 포스트모더니즘적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절대적 진리와 기존 가치의 붕괴, 상대주의와 종교다원주의의 확산, 개인적 차별성, 과소비, 여흥문화 증가, 탈전통화, 도덕적 부재 등의 다양한 사회적 양상을 경험하게 되었다.¹⁹⁾

18) 김성환은 임상적 연구를 통해 한국교회 성도들의 하나님 이미지에 전통종교의 영향이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Sung Hwan Kim, "An Interplay Between God-Images and the Korean Traditional Religions in a Hermeneutics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Th.D. diss., Stellenbosch University, 2005), 177-184; 김성환, "전통종교의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상담학적 고찰", 119-124.

19) Young-hee Kim, Shim, "The Influence of Wangtta on God-Images of Korean Children: A Pastoral Assessment", 41-73; G. R. Osborne, "Christianity Challenges Postmodernis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pistemology, Hermeneutics, Biblical Theology and Contextualization: Understanding Truth*, ed. D. W. Kennard (Lewiston, NY.: Edwin Mellen Press, 1999), 93-116.

그리고 한국사회는 세계경제의 글로벌의 영향으로 인해 경제적 성취, 여흥, 돈벌이, 소비, 물질적 과시와 경제적 힘은 우선시 되고 상대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은 퇴색하는 세속적인 사회적 준거틀 속에 놓이게 되었다.²⁰⁾

포스트모더니즘과 종교다원주의의 흐름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실체에 혼란을 야기하였고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는 현세적 번영과 성공을 위한 하나님을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도구적 이미지가 한층 강화 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경이 보여주는 실체적 하나님 이미지에 혼돈이 오고 도구적 하나님의 이미지가 강해질수록 가정폭력 피해성도는 폭력에 노출되는 고통 중에 공허의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더 어려워진다. 상습적인 폭력에 노출되면서 피해성도는 당연히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을 무너뜨리고 강압하고 짓누르는 강한 힘을 경험하게 된다. 이 경우 피해성도는 하나님이 그러한 환경을 궁극적으로 주관하는 강압적 힘을 가진 두려운 존재로 여길 수도 있는데 만약 그에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혼란이 오거나 세속적이고 값싼 낙관적 믿음에 응답하는 사무적이고 도구적 하나님으로 느껴진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한 치유는 더 힘들어 질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은 우리의 현세적 성공과 물질적 번영을 보장해주는 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가정폭력 피해성도로 하여금 받아들이고 참기 어려운 폭력의 현실 속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 아픔을 함께 해주시며 마침내 부활의 소망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공허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도록 도와야 하는데 이 점은 본 논고의 후반 부에 좀 더 논의하고자 한다.

4) 신경생리적 관점

가정폭력 피해성도가 폭력의 경험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하나님이미지 형성에 주는 영향을 살펴 보기위해 외부적인 스트레스나 충격적인 외상적 상황에 대한 뇌의 신경 생리적 반응 메커니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

20) D. S. Plou, *Global Communication: Is There for a Place for Human Dignity?* (Geneva: WCC publication, 1996), 61.

피해 성도는 폭력에 노출된 경험으로 인해 그 폭력의 가해자 뿐 아니라 그 가해자로 하여금 폭력을 행사하도록 허용하시고 궁극적 의미에서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정서적 거리감을 포함 한 전 인격적 거리감과 간격이 더 넓어지게 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는 하나님이미지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폭력 등의 과도한 외상경험이 미치는 신경 생리적 영향을 살펴봄으로 가정폭력 피해성도가 가지게 되는 하나님이미지 왜곡의 실체를 보다 좀 더 입체적으로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부간이나 자신에 대한 심각한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이 경험하는 외상적 충격의 강도가 전쟁이나 내전상태에 있는 나라의 아동이 겪는 심리적 충격의 강도보다 더 심할 수 있음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맥클린이라는 학자는 뇌를 3개의 층으로 분류했는데 1층에 뇌간을 중심으로 한 파충류의 뇌, 2 층이 변연계를 중심으로 한 포유류의 뇌, 그리고 3층이 대뇌피질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뇌 부분이다. 이중 2층의 변연계는 인간의 심리의 정서적 차원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특히 변연계내의 편도체(amygdala) 시스템은 외부의 스트레스나 외상적 충격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나 기억을 관장하고 주도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편도체 시스템이 담당한다고 믿어진다. 해마(hippocampus)는 편도체와 긴밀히 연결되어 특정 자극에 동반된 정서의 구체적 내용과 의미를 저장하는 기능을 담당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해마는 특정 정서와 관련된 기억 뿐 아니라 뇌의 감각중추를 통해 단기기억(short-term memory)에 들어온 정보들을 대뇌 피질의 특정 기능 체계들과 관련시켜 장기기억(long-term memory)으로 저장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¹⁾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외상적 충격에 대한 편도체 시스템의 작용 메커니즘인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자 들의 경우를 들어 살펴보자. 이 장애는 기본적으로 전쟁, 천재지변, 강간 등 극심한 외상성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극심한 공포, 무력감, 고통을 동반한 다양한 신체적,

21) Joseph Ledoux, *The Emotional Brain*, 최준식 역, 『느끼는 뇌』 (서울: 학지사, 2006), 219-236; 김유미, 『뇌를 통해 본 아동의정서』 (서울: 학지사, 2005), 76-84.

정신적 증상 들을 말하는데 극심한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던 사람들도 이러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종류의 외상성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정서반응과 공포, 분노, 두려움 등의 기억을 관장하는 편도체 시스템은 극도로 활성화된다. 편도체 시스템이 극도로 활성화되면 그 당시의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을 통해 들어온 모든 정보와 그 당시의 느낌과 인체생리적 반응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들이 매우 생생하게 기억회로에 저장된다. 편도체 시스템이 이러한 긴급하고 충격적인 외상상황과 연관된 정서적 기억과 그에 따른 모든 정보를 일상적인 경험의 정보보다 또렷이 생생하게 저장하는 이유는 다음에 유사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에 대한 무의식적 대처를 가장 신속하게 진행하여 생존의 확률을 높이고 대처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신경 생리적 자기보호기제의 작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 폭력 피해자의 폭력 경험 당시의 두려움과 공포, 모멸감과 분노와 복수심 등의 정서적 기억은 매우 강한 강도로 편도체를 중심으로 한 변연계에 저장 된다. 물론 이때 편도체와 연결된 해마시스템과 그와 연결된 대뇌피질의 신경회로망 속에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이미지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생각기억 등이 함께 생생하게 기억된다. 그러므로 편도체가 많이 활성화되었던 지난 기억들이 그렇지 않은 기억들 보다 훨씬 더 또렷하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다.²²⁾

문제는 과도한 가정폭력에 장기간 노출된 성도의 경우 편도체 시스템을 중심으로 두려움, 분노, 공포, 복수심, 열등감 등의 정서들이 강하게 각인되어 그것이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문제나 장애를 유발하거나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성장과정에서 아버지에 의해 어머니가 폭력당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거나 자신이 폭력에 노출된 성도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성도의 경우 아버지에 대한 공포, 복수심 등의 부정적 정서가 편도체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변연계에 강하게 저장될 것이다. 동시에 그러한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게 하고 그 아버지를 통해 나에게 그토록 큰 아픔과 상처를 주도록 허용하시고서 쉽

22) 이영돈, 『마음』 (서울: 예담, 2006), 240-242.

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거리감 있고 부정적 계열의 정서들이 강하게 각인 될 수 있고 이것이 그 성도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믿음의 성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구체적 연구가 더 필요하겠지만 심각한 가정폭력에 노출된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하나님과의 정서적 거리감이 그렇지 않은 성도들 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장벽을 느낄 가능성이 보다 높다. 가정폭력 경험에 대한 편도체를 중심으로 한 신경 생리적 메카니즘은 그 이유를 조금 더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준다.

3. 가정폭력피해성도의 하나님이미지와 신학적 대안

1) 십자가와 긍휼의 신학

가정폭력 피해성도의 하나님 이미지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심리적, 전통종교문화적, 사회적, 신경생리적 요인 등의 상호작용에 의해 왜곡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왜곡되고 편향 된 이미지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 특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참 하나님에 의해 바로 잡힐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성도를 위한 긍휼의 신학의 정립을 위해서는 신구약 성경의 계시에 근거한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요구된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요 절대적 주권자로 나타난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을 억누르고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장악하는 자기중심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보다는 그들을 구원하고 자유하게하며 복주시며 긍휼히 여기는 자기희생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특히 그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고전 1:22-25에서는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연약함과 어리석음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상식적 이해를 반전시키는 역설적인 관점을 만난다.²³⁾

23) Sung Hwan Kim, "An Interplay Between God-Images and the Korean Traditional Religions in a Hermeneutics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177-184.

또한 가정폭력 피해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죄를 싫어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성결케 하시고 연단하시며 하나님 자신의 언약적 은혜 안에서 거룩하고 풍성한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다듬으시기 위해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해 매를 드시고 심판을 하신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 저지르는 모든 죄에 대해 일일이 개별적으로 인과응보 적인 천벌'을 내리시는 분은 아니시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성취와 만족을 요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거룩한 심판과 벌을 대신 짊어지고 자신의 모든 요구를 성취 할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에 대한 근본적인 심판과 형벌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그리스에게 대신 담당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인과응보적이고 인과응보적 벌이나 하나님의 냉담성(apathy)과 관련시켜 이해하기 보다는 그 분 자신의 대속적 용서와 구원, 그리고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려는 긍휼의 심판과 자기희생적 사랑의 빛 아래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²⁴⁾

Martin Luther는 우리를 위해 고통 받으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재조정할 것을 주장한다. 그는 십자가의 고난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 더 이상 무감정적이고 냉담하신 분이 아니며 우리와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시고 그의 신실하심과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는 긍휼의 하나님이다. 그는 자신의 십자가 신학을 통해 십자가의 고난과 연약함 속에 드러나는 역설적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참 능력에 대한 상식적 이해를 뒤집는다.²⁵⁾ Daniel J. Louw는 복음과 연관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온전한 치유와 성숙에 이를 수 있다는 언약치유적 관점을 제시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차원을 잃지 않는

24) Sung Hwan Kim, "An Interplay Between God-Images and the Korean Traditional Religions in a Hermeneutics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218-219.

25) Galen Tinder, "Luther's Theology of Christian Suffering and Its Implications for Pastoral Care," *Dialog* 25, no.2 (1986): 108-113.

가운데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와 공흥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초월성, 인간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동일시와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균형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찾을 것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신학 진영의 학자들 중에 인간과 아픔을 함께 하시는 고난의 하나님을 강조한 나머지 십자가 신학을 사변적으로 다루거나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의 구속사적 차원에 대한 균형적 접근을 상실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²⁶⁾ 이와 같이 신, 구약 성경은 물론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와 함께 고통과 아픔을 나누시고 위로와 소망으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공흥의 신학과 공흥의 하나님이 제시 될 때 가정폭력피해성도들의 하나님 이미지가 성경적 회복되고 치유와 믿음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신정론적 신학 확립

신정론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부조리와 악,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 배후에서 그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변증과 논의를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설교나 기타 교회교육을 통해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한 성경적 지식들을 접할 기회가 많으며 가정폭력 피해성도들이 고난의 의미나 유익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더라도 “무자비한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가운데서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납득 할 수 없는 상황을 나에게 허용하시고, 섭리하시는

26) Daniel J. Louw, *Meaning in Suffering: A Theological Reflection on the Cross and Resurrection for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New York: Peter Lang, 2000), 112-167; Sung Hwan Kim, “An Interplay Between God-Images and the Korean Traditional Religions in a Hermeneutics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188-212. 기타모리 (Kitamori), 몰트만(Moltmann)들은 하나님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십자가신학에 대한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해석과 적용을 시도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본유의 성경적 의미를 퇴색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K. Kitamori, “The Theology of the Pain of God,” *Japan Christian Quarterly* 19 (1953): 16-23; J. Moltmann, *The Crucified God*, trans. R. A. Wilson (New York: Harper & Row, 1974).

가?”하는 의문을 제기 할 수 있다. 다니엘 로우는 신정론적과 관련된 신학적 논의가 가지는 이성적 논리적 접근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부조리와 악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카페적인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 아카페디시(Agapedicy)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사용한다. 로우는 하나님과 고난의 기원에 대한 신정론적 논의는 어떤 논리적 만족과 위로도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사역자들은 로우가 말한대로 다음의 두 가지를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요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아픔과 고통을 나누시며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위의 죽으심과 함께 하셨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 절대주권을 가지고 인간들이 겪는 고난을 포함한 이 세상과 우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시지만 그 고난 중에 아픔과 고통을 나누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²⁷⁾

J. A. van der Van은 “신정론의 쟁점인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사랑의 화해 혹은 조화의 문제가 이성적 접근에 의해서 해결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성취 될 수 있는가?”는 핵심적 질문을 던지면서 4개의 하나님 개념 모델 다시 말해 냉담모델(apathy model), 징벌모델(Retaliatio model), 교육모델(education model), 결속/동일시모델 (solidarity model)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²⁸⁾ 한국교회 가정폭력 피해 성도의 경우 앞서 살펴본 심리학이나 종교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하나님 이미지의 무게중심이 냉담모델이나 징벌모델의 준거를 쪽으로 너무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하나님 이미지 무게중심의 편향은 하나님과의 전인격적 간격을 넓게 하여 하나님과의

27) Daniel J. Louw, “Nightmare After the American Dream-Reassessing Paradigm and Possible Leap into Trans-Postmodernity,” *Practical Theology in South Africa* 17, no.2 (2002): 93.

28) J. A. van der Van, *Practical Theology: An Empirical Approach* (AC Kampen: Kok Phros Publishing House, 1993), 183-210.

인격적 만남을 방해하여 가정폭력 피해성도의 치유와 회복의 근원적인 방해 요소로 작용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가정폭력 피해성도의 하나님의 이미지의 무게중심이 냉담모델이나 징벌모델 모델의 준거 틀 쪽에서 긍휼모델이나 대속모델 섭리통치 모델의 준거 틀 쪽으로 좀 더 이동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그를 통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의 관계를 회복하고 전인적 치유와 회복 그리고 성장의 길로 들어 설수 있는 근원적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III. 닫는 글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가정폭력의 문제는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들도 대부분 그 사실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 폭력이 은폐되고 은밀히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교회에도 폭력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안고 고통가운데 살아가면서 온전한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존재하겠지만 본 연구를 통해 폭력경험과 기타 여러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비성경적으로 왜곡된 하나님 이미지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정폭력 피해성도의 왜곡된 이미지를 성경적으로 회복하여 온전한 치유와 믿음의 성숙을 돕기 위해 가정폭력이 하나님의 이미지 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대상관계심리적 관점에서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폭력적인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에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뿐만 아니라 샤머니즘, 유교, 도교, 불교 등의 전통종교의 영향으로 형성된 도구적인 하나님의 이미지 잘못에 가차 없이 벌을 내리시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이미지가 폭력의 환경과 어우러져 무엇인가 거리감 있고 차가운 하나님의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이나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같은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하나님에 대한 실체적, 성경적 이해에 혼선을 야기하고 이기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적 하나님의 이미지를 강화함으로써 폭력 경험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가정폭력 피해성도들로 하여금 따뜻한 하나님 품에 안기는데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 신경생리학적 관점에서는 자신에게 그러한 고통과 상처를 준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이 편도체를 중심으로 한 변연시스템에 강하게 각인되어 피해성도와 하나님과의 전인격적 만남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의 성경적으로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친구약 성경과 십자가 신학을 중심으로 우리의 고통을 함께하시며 부활의 소망으로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이미지를 강조하는 궁핍의 신학의 재정립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에 기초한 신정론의 확립과 제시가 필요하다. 그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성도들의 아픔과 상처가 따뜻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들이 믿음과 소망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신실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을 기대해보는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은희.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교정집단이 가정폭력해위자의 폭력행동,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대학원, 2008.
- 김성혜. “한국인의 하나님 개념”. 서강대종교신학연구소. 「종교신학연구」 제8호 (1995): 107-127.
- 김성혜. “한국인의 하나님 개념과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사상 관념”. 한국카톨릭문화연구소 15회 심포지움, 1993년: 4-60.
- 김사훈. “초기 대상관계를 통해 본 하나님 이미지”. 기독교상담연구소. 「복음과 상담」 제 29호(2003): 9-46.
- 김사훈. “내면화과정과 하나님 이미지 형성간의 관계연구”.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대학원, 2005.
- 김선희.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기독교상담: 폴링의 이론을 중심으로”. 기독교상담연구소. 「복음과 상담」 제4호(2009): 22-76.
- 김성환. “전통종교의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상담학적 고찰”. 한국성경적상담학회. 「성경과 상담」 제10권(2010): 103-130.
- 김유미. 『뇌를 통해 본 아동의 정서』. 서울: 학지사, 2005.
- 권수영. 『기독교상담, 어떻게 다른가요?』. 서울: 학지사, 2007.
- 변상해. “한국가족폭력피해자 교정상담프로그램만족도와 내용분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백석대학교, 2007.
- 반신환. “신 형상에 대한 Rizzuto의 대상관계론적 이해와 그 비판”. 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 제3호(1997): 213-219.
- 이영돈. 『마음』. 서울: 예담, 2006.
- 전요셉. “청소년이 인식한 부성부재와 성역할 정체성 및 하나님이미지의 구조적 관계: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중심으로”.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제11권 3호(2010): 1237-1253.
- 황혜리·김경탁. “기독교 대학생의 하나님 이미지와 자존감의 관계: H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제6권 1호(2005): 275-286.

- Fisher, Kay-Laurel & McGrane, Michael F. *Journey Beyond Abuse*. Saint Paul, MN.: Amherst H Wider Foundation, 1977.
- Hall, T. W. & Brokaw, B. F. "The Relationship of Spiritual Maturity to the Level of Object Relations Development and God Image." *Pastoral Psychology* 43, no.6 (1995): 365-372.
- Hughes, H. M. "Psychology and Behavior Correlates of Family Violence in Child Witness and Victi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8 (1988): 77-90.
- Ledoux, Joseph. *The Emotional Brain*. 최준식 역. 『느끼는 뇌』. 서울: 학지사, 2006.
- Louw, Daniel J. *A Pastoral Hermeneutics of Care and Encounter: A Theological Design for Basic Theory, Anthropology, Method and Therapy*. Cape Town: Lux Verbi, 1999.
- Louw, Daniel J. *Meaning in Suffering: A Theological Reflection on the Cross and Resurrection for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New York: Peter Lang, 2000.
- Louw, Daniel J. "Nightmare After the American Dream-Reassessing Paradigm and Possible Leap into Trans-Postmodernity." *Practical Theology* 17, no.2 (2002): 88-97.
- Kim, Tae-Kon. *Korean Shamanism-Muism*. trans. & ed. Soo-Kyoung Chang. *Korean Studies and Series* 9. Seoul: Jimoondang, 1998.
- Kim, Sung-hae, "Religious Reality and Coexistence in the Present-Day Korea." *Korea Journal* 28, no.3 (1998): 4-23,
- Kim, Sung-Hwan. "An Interplay Between God-Images and the Korean Traditional Religions in a Hermeneutics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Th.D. diss., Stellenbosch University, 2005.
- Kitamori, K. 1953. "The Theology of the Pain of God." *Japan Christian Quarterly* 19 (1953): 16-23.
- McDargh, John. *Psychoanalytic Object Relations Theory and the Study of Religion: On Faith and the Imaging of God*.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3.
- Moltmann, J. *The Crucified God*. trans. R. A. Wilson. New York: Harper & Row, 1974.

- O'Keefe, M. "Adjustment of Children from Maritally Violent Home." *Family in Society* 75 (1994): 403-405.
- Osborne, G. R. "Christianity Challenges Postmodernis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pistemology, Hermeneutics, Biblical Theology and Contextualization: Understanding Truth*. ed. D. W. Kennard. Lewiston, NY.: Edwin Mellen Press, 1999.
- Plou, D. S. "Global Communication: Is there for a Place for Human Dignity?" Geneva: WCC publication, 1996.
- Rha, Yong-Bok. "An Analysis of the Terms Used for God in Korea in the Context of Indigenization." Th. D. diss., Free University, 1977.
- Rizzuto, Ana Maria. *The Birth of Living Go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 Saur, M. S. & Saur, W. G. "Image of God: A Study of Psychoanalyzed Adults." In *Object Relation Theory and Religion: Clinical Applications*. eds. M. Finn & J. Gartner. Westport, CT.: Praeger, 1992.
- Shim, Young-hee Kim. "The Influence of Wangtta on God-Images of Korean Children: A Pastoral Assessment." Th.D. diss., University of Stellenbosch, 2003.
- Tinder, G. "Luther's Theology of Christian Suffering and Its Implications for Pastoral Care." *Dialog* 25, no.2 (1986): 108-113.
- Van der Van, J. A. *Practical Theology: An Empirical Approach*. AC Kampen: Kok Phros Publishing House, 1993.
- Viladesau, R. *Theological Aesthetics: God in Imagination, Beauty and Ar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Winnicott, Donald W. *Playing and Reality*. New York: Routledge, 1997.
- <http://peakhill.blog.me/140120584285>

【 Abstract 】

A Study on the Formation Factors of the Family Violence
Victims' God-Images and the Theological Response

Sunghwan Kim

Kwangshin University

The central aim of this study relates to the issue of exploring some formation factors of the family violence victims' God-images within the Korean Church and proposing brief theological direction in order to reframe their distorted God-images biblically. The family violence victims' God-images within the Korean Church can be easily distorted on account of the interaction among terrible violence experience and other causes. Due to this, as the researcher believes, their deep heart wound might not be healed easily and their growth of faith could be hindered. Thus, this study tries to examine some factors in the perspectives of object relation theory, the Korean traditional religions, social paradigm shift and neuro-physiology. As a result, many factors such as, negative violent parents' images, apathetic and frightening God-image within the Korean traditional religions, chaotic understanding the entity of biblical God and an image of God as a tool, fear and anger feeling toward God remain etched in the amygdala deep inside the human brain might influence interactively on formation of distorted victims' God-images. In order to build and suggest a more relevant theological direction to reframe victims' God-images, this study proposes the theology of compassion and theodicy on the basis of God's compassion, grace, consolation, hope, especially in the light of the Christ's death and resurrection on the cross.

Key words: God-images, family violence, object relation theory, traditional religions, theology of compassion